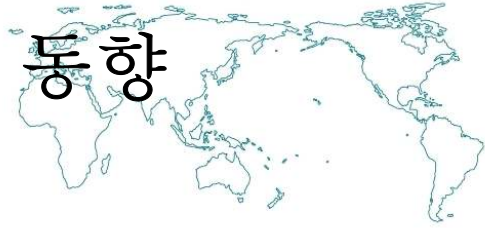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3. 10

1st Week

목차

1. WiGig, 60GHz 대역으로 USB 케이블 대체
2. 독일 상호운영성 센터, ICT의 복잡성으로 골머리
3. 모바일 기기 테스트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산업 컨소시엄 출범
4. TTA, 모바일 및 퍼스널 무선 표준에 대한 TR-8 위원회와 APCO와의 공동 회의 마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 본 자료의 게시처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해외표준화기구동향

1

WiGig, 60GHz 대역으로 USB 케이블 대체

- 보도날짜 : 2013. 9. 24
 - 출처 : recomb
 - 사이트 : http://recombu.com/digital/news/wi-fi-alliance-readies-60ghz-wigig-spec_M12170.html
-
- 이제 WiGig 역시 무선 USB의 형태로서 역할을 하며 HDMI 케이블을 길게 연장하는 데에서 탈피할 수 있음
 - WiGig 전송은 라이선스가 없는 60GHz 대역 스펙트럼 일부를 사용하여 USB 케이블을 무선 연결로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약 1,000여 개의 이미지를 5초 만에, 2분짜리 HD 비디오를 3초 만에 PC 간에 전송 가능
 - 기술의 범위가 대체적으로 짧은 거리에 국한하므로 Wi-Fi를 위한 직접적인 대체물은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컴퓨터에 주변장치를 연결하거나 TV에 블루레이 플레이어 연결하는 케이블은 대체할 수 있음
 - WiGig 무선 USB 표준은 기존의 USB 2.0/3.0 드라이버와 API를 사용하며, 훨씬 쉽게 새로운 장치를 추가할 수 있게 함
 - 이는 USB Implementers Forum에 새로운 표준을 가져오기 위해 Wi-Fi Alliance가 포럼과 팀을 형성한 이후의 성과임
 - 포럼은 Media Agnostic USB 표준 개발을 계획함
 - WiGig 및 Wi-Fi 인증 제품이 USB 기능을 구현 할 것으로 기대됨
 - Wi-Fi Alliance는 WiGig 디스플레이 확장 표준에 기반한 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비디오 전자 표준위원회(VESA)와도 협력하고 있음
 - 상호운용 가능한 WiGig 제품은 2014년에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됨

2

독일 상호운용성 센터, ICT의 복잡성으로 골머리

- 보도날짜 : 2013. 9. 25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 사이트 : <https://joinup.ec.europa.eu/community/osor/news/icts-complexity-obstacles-germanys-interoperability-centre>
- 정보기술부는 상호운용성 문제를 위한 연합 리소스 센터에 대한 독일의 계획이 “ICT의 복잡도와 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에 예측 불가능했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저지되고 있다고 말함
- ‘상호운용성 정보센터’는 2010년에 시작된 ‘디지털 독일 2015’ 전략 내 네 가지 조치 중 하나임
 - 정부는 또한 상호운용성 테스트, 웹 포털 수립, 지식전달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립할 것임
- 지난 11월 내각은 테스트 시설 설립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주 대변인이 그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고 밝힘
- 디지털 독일 2015 계획에서, 독일 정부는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이 주요 국가 전략이라 밝힘
- 이들이 복잡한 기술 시스템에 필수적이며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기 때문
 - 표준화는 제품을 선택에 있어 광범위한 비 독점적 영역을 가능케 함
- 계획에 따르면, 독일의 최우선 순위는 ICT 시장으로의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는 개방형 표준의 활용임
- 이는 복잡한 기술 시스템 내의 상호운용성 및 기능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플랫폼 요구 조건을 포함하는) 상호운용 가능한 기본 통신 인프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해 필수적임

3

**모바일 기기 테스트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산업 컨소시엄 출범**

- 보도날짜 : 2013. 9. 25
- 출처 : Market Watch
- 사이트 : <http://www.marketwatch.com/story/new-industry-consortium-bench-marks-to-simplify-and-improve-testing-of-mobile-devices-2013-09-25>

■ Broadcom, Huawei, OPPO, 삼성전자 및 Spreadtrum은 새로운 산업 컨소시엄인 MobileBench의 형성을 발표함

- MobileBench 컨소시엄은 보다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시스템 수준의 모바일 기기의 성능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됨
- MobileBench 컨소시엄은 우선 모바일 플랫폼 내의 모든 요소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시스템 수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자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 MobileBench 컨소시엄은 모바일 플랫폼 설계자에게는 빠른 출시적시(time-to-market) 분석에 기반한 보다 유용한 솔루션을, 소비자에게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 평가를 위한 보다 높은 신뢰성 지수를 제공할 것

■ MobileBench 컨소시엄은 곧 다음의 두 가지 전문 엔지니어링 트랙을 도입할 계획임:

- 하드웨어 평가를 위한 MobileBench
- 시스템 수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MobileBench-UX

■ MobileBench 컨소시엄은 또한 향후 소비자가 스스로 퍼스널 모바일 기기를 평가하는 테스트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4

TIA, 모바일 및 퍼스널 무선 표준에 대한
TR-8 위원회와 APCO와의 공동 회의 마침

- 보도날짜 : 2013. 9. 26
- 출처 : TIA
- 사이트 : <http://www.tiaonline.org/news-media/press-releases/tia-tr-8-committee-mobile-and-personal-private-radio-standards-concludes>

■ TIA는 개인 무선 시스템의 TR-8 위원회가 2013년 8월 15-17일 간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프로젝트 25 운영 위원회와 공동 개최됨
- 공공안전 통신 관계자 협회(Association of Public-Safety Communications Officials, APCO)의 79번째 컨퍼런스/엑스포와 함께 열렸음

■ 다음의 내용들이 회의 중 논의되었음:

- 안테나 시스템의 TR-8.11 소위원회가 신호 부스터 시스템 워킹그룹을 활성화 하였으며 2013년 9월 12일에 시작하는 격월 회의를 예정 중
- TR-8.8 광대역 데이터 시스템 분과위원회는 최근 TSB-4973, 광대역 데이터 프로토콜 표준 개요를 발표
- TIA-PN-102.CCAA-A 트랜시버 측정 방법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투표에 부쳐짐
- TIA-PN-102.BAED, 패킷 데이터 링크 계층 제어 단계 등의 프로젝트가 승인됨

■ 다음 TR-8과 P25 회의는 2013년 10월 7-10일 간 메릴랜드의 게일로드 내셔널 리조트와 컨벤션 센터에서 TIA 2013과 함께 열림